송준영 시인과 禪詩 깊이 읽기

3. 육조의 오도송(상)

자성이 본래 청정한 줄 내 어찌 알았으리오!
자성이 본래 생멸 없음을 내 어찌 생각했으리오!
자성이 본래 스스로 모두 갖추었음을 내 어찌 기대하였으리오!
자성이 본래 동요 없음을 내 어찌 예측했으리오!
자성이 그 자체로 능히 만법을 냄을 내 어찌 알았으리오!
何期自性 本自淸淨
何期自性 本不生滅
何期自性 本自具足
何期自性 本無動搖
何期自性 能生萬法
–육조 혜능

6조 혜능(六祖慧能, 638~713)은 시법시 '보리본무수(菩提本無樹)'를 지은 후, 오조 홍인의 부름을 받아 <금강경> 법문을 듣는다.

이때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應無所住以生基心)"라는 구절에 이르자 혜능은 언하에 확철대오하니, 일체만법이 자성을 여의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이 구절은 혜능이 출가할 뜻을 일으키는 '인연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위의 게송은 극도로 진공상태인 무아경지에서 심정을 토로한 오도송이다. 현대수사학으로 보면 진술시인 독백시다.

"자성이 본래 청정한 줄 내 어찌 알았으리"
제멋대로 잎이 지고 꽃이 지듯
일체만물이 본래 참모습임을 알아야

이 오도송을 듣고, 혜능이 진실로 자성본원에 이른 것을 안 홍인은 "자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불법을 공부하여도 아무 이득을 얻을 수 없다. 본심을 알고 자성을 터득한 사람이야말로 장부요, 하늘과 사람의 스승이며, 이 사람이 부처다(不識本心 學法無益 若識自本心 見自本性 天人師 佛 世尊)"라고 설하고, 조사의 의발과 돈교의 법을 밀지한다.

혜능은 광동성 영남에서 태어났다. 성은 노씨고 이름은 능이다. 너무 가난하여 글자를 깨칠 기회조차 없었던 그는, 어느 날 시장에서 우연히 어떤 사람이 읽는 <금강경> 독경소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이 난다"를 듣고 바로 그 뜻을 알았으며, 이 경전의 말씀을 베푸는 곳이 하북 황매산 5조 홍인(五祖弘忍, 601~678)임을 알게 된다.

혜능은 멀리 하북 황매현 빙무산(별칭 동산)을 찾았다. 홍인은 그를 보자, 몇 마디 테스트를 했다.

"영남은 오랑캐라, 그런 주제에 어떻게 부처가 되겠는가?" 하자 혜능은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겠습니다만 불성에 어찌 남북이 있겠습니까? 이 오랑캐와 스님이 어찌 같겠습니까마는 불성에야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육조법보단경> '오법전의' 제1.)

이 말을 들은 홍인은 이 사람이 다듬어지지는 않았으나 근기가 빼어난 사람임을 발견한다.

혜능에게 방앗간 일을 시킨 지 일여덟 달이 지난 어느 날, 조사께서 법통을 전승시킬 때가 되었음을 알고 산중 모든 대중을 불러 모으고, 지혜를 스스로 살펴 자기 본심인 반야의 성품으로 게송을 하나씩 지어 오라하며, 만일 큰 뜻을 깨친 사람이 있으면 법과 옷을 전하여 제 6대 조로 삼겠다고 공포하였다.

이때 대중들의 교수사인 신수는 법과 옷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스승의 분부를 받드는 의미로 아래의 게송을 지어야 했다. 신수는 게송을 오조께 바치려하니, 심중이 황홀하고 온 몸에 땀이 흘러 어쩔 수 없이 스님이 보고 판단하도록 복도의 벽에 붙였다.

이 게송을 본 5조는 제자들에게 이 게송을 암기해서 따르면 그저 악도(惡道)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칭찬하였다. 이 게송을 들은 혜능은 자기가 지은 아래 게송을, 글을 아는 사미에게 써 달라하여 신수의 게송 옆에 붙이니, 오조께서 보고 혜능이 자성을 보고 견성하였을 알고 삼경에 가만히 불러서 6대 조사로 인가했다. 신수와 혜능의 게송을 살펴보자. (계속)

공광규 시인과 시집 즐겨 읽기❸

단추

문숙 | 천년의 시작

문숙의 시는 일상 제재를 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표현과 내용이 난해하거나 모호하거나 기괴하지 않아 읽기에 쉽고 편하다. 그는 주로 일상, 특히 주부 일상에서 채취한 제재를 보편적인 삶의 원리로 형상화해 내는데 탁월함을 발휘하는 언어의 마술사이다.

이를테면 헌 고무장갑, 어머니, 치약 껍데기, 항아리, 단추, 새우튀김, 버선코, 소화기, 수건, 페트병, 마늘, 낡은 장롱, 부부, 금간 화분, 나무도마, 종이컵 등을 제목으로 삼거나 시의 제제로 등장시킨다. 그는 좌판 위에 한 손씩 묶여 있는 고등어 자반을 제재로 포착하여 시적 형상화를 통해 부부애로 전화시킨다. 한 손은 물고기 두 마리를 세는 단위이다.

좌판 위에 고등어자반 한 손
제 속을 버리고 한 쌍이 되었다
한 마리가 가슴을 넓게 벌리고
또 한 마리는 뼈까지 드러내며
바다의 푸른 기억을
서로의 품으로 껴안는다
가슴을 갈라 등을 품는 아픔의 두께

일상의 제재 보편적 삶의 원리로 승화

잔물결이 사라진 시간
머리도 비우고 지느러미도 접은 채
서로에게 절여진 고등어 두 마리
그들의 접힌 상처 사이에
허옇게 말라붙은 바다가 보인다
– '부부' 전문

모두 3연 12행의 이 시는 몸이 펴진 채 서로 겹쳐져 있는 소금 간을 한 고등어자반 두 마리를 부부로 착안하여 서술하는데 매력이 있다. 특히 1연에서 부부가 고등어자반처럼 "제 속을 서로 버리고 한 쌍이 되었다"는 부부생활의 원리를 암시하고 있어 흥미롭다. 2연에서는 배가 갈라져서 벌어진 자반이 겹쳐져 있는 모습을 "서로의 품으로 껴안는다"고 상상한다. 그리고 "가슴을 갈라 등을 품는 아픔의 두께"라는 표현의 묘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화자는 부부의 관계를 서로에게 절여지는 고통의 관계로 암시하고 있어 아프다. 남녀가 만나서 부부의 인연을 맺는 것은 숙세에 맺은 깊은 인연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통스런 관계도 숙세에 맺은 인연 때문이리라. 이런 그가 어느 겨울날 칠장사에 갔다가 시를 건졌나보다. 눈 오는 날, 번잡하지 않은 절의 풍경을 고요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있다.

흰 고무신 한 짝
댓돌 위에서 낯빛 푸르게 외롭다
댓잎 서걱이는 뒷마당을 지키는
개가
가끔 오옴 오옴 경을 외듯 짖는다
세상길을 지우며 눈이 내린다.
– '겨울 칠장사' 전문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

❸ 세 가지 누룽떡

산중의 스님들은 삭발하고 목욕하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날은 찰밥에 미역국 그리고 찰떡을 만들어 먹습니다.

찹쌀은 예로부터 스님들의 보양식으로 널리 쓰여 왔습니다. 주변에서 구하기 쉬우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음식을 만들어 영양을 섭취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병을 고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스님들 보양식으로 널리 쓰여
찰떡에 된장국 모유 생성 도움

예를 들어 늑막염에는 찹쌀현미 1홉과 밤나무 잎 15장을 물 1되를 넣고 끓이다가 약한 불에 졸여 5홉이 될 때까지 달여, 이를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 마시면 치료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감기에 들었거나 모유가 부족한 산모의 경우 찰떡을 된장국에 넣어 먹으면 신기할 정도로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만들어 볼 음식은 찹쌀로 만든 떡에 감자, 연근, 두부 등을 넣어 부쳐내는 '누룽떡'입니다. 누룽떡은 누룽지 처럼 떡을 구웠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떡은 절에 절편이 많이 남았을 때 딱딱해진 떡을 부드럽게 만들고, 감자와 연근 등을 이용해 색다른 맛을 내기 위해 만들어 먹던 것입니다.

오늘은 맛있으면서도 치료에 도움이 되는 세 가지 누룽떡을 소개합니다.

세 가지 누룽떡

재료: 찹쌀, 쑥, 감자, 연근, 두부, 소금, 참기름, 들기름, 간장

1. 찹쌀을 씻어 잘 불린다. 쌀 한 톨을 엄지와 검지로 비볐을 때 잘 으스러지면 적당히 불려진 것이다.
2. 쑥은 소금을 조금 넣고 끓는 물에 무르게 데쳐 건진 후 물을 꼭 짜둔다. 소금을 넣으면 색이 더욱 푸르게 데쳐진다.
3. 시루에 베보를 깔고 찹쌀을 푹 찐 다음, 솥뚜껑을 열고 나무주걱으로 뒤적거리며 연한 소금물을 넣어 다시 푹 찐다.
4. 다 쪄진 찹쌀은 절구에 넣고 밥알이 다 풀어지도록 찧어 떡을 만든 후 두께 1cm, 길이 5cm 정도의 사각형으로 잘라 비닐로 하나씩 포장해 냉동실에 보관한다.
5. 감자는 가늘게 채 썬다. 들기름을 두른 프라이팬에 감자를 깐 후 그 위에 찰떡 하나를 올려놓고 다시 감자 채 썬 것을 도톰하게 깐다. 찰떡이 열에 녹으면서 감자와 어우러져 노릇하게 익는다. 감자채가 익으면 뒤집어 다시 구워낸다.
6. 연근은 껍질을 까고 둥근 모양 그대로 2mm 두께로 썬다. 위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연근과 떡을 올린 후 부쳐낸다.
7. 두부는 5mm 두께로 썰어 같은 방식으로 굽는다.

역학 개인지도

◆ 한자를 모르고, 기초가 없어도 2개월만 배우면,
◆ 누구나 프로가 될 수 있는 효타만의 비법을 강의합니다.
◆ 철저하게 실전위주의 강의로, 가장 짧은 시간에, 명확하고 확실하게 운명을 감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며,
◆ 작명, 풍수지리, 관상학도 기본적으로 배움.
◆ 망설이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자 격 : 나이 및 학력 제한없음
▵개강일시 : 2007년 3월 2일 – 4월 28일(매주 목, 금요일, 현재 강의중)
◆ 단체 출장 강의도 함(미리 접수하시기 바람)
◆ 인연있는 제자 한분을 기다립니다(남 · 여 구분없음)
◆ 수강료 : 백오십만

"신수비결"
2007 정해년의 운세
● 정해년의 직업 운
●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관계
● 학생의 성적 운, 진학 운, 등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30,000 (삼만원)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4,879자
● 320여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 오행의 조화
● 성씨별로 2000~3000 여개의 이름들
● 작명, 개명, 상호, 법명 사용가능함
● 이름대사전: 50,000 (오만원)

효 타 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육氣방

◈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변하여 하시는 일들이 잘됩니다.
◈ 관재나 삼재에 시달리신분.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는분.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는분. 사주가 안좋으신 분들은 명당육氣방 가묘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강한 명당을 만들어 주면 새 운으로 변하여 좋아지게 됩니다.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氣가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 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당어리 복덩어리 황금당어리 氣가막힌 복이들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